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8
2025.12.29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ETS 국가 보조금 지원 비율 80%로 상향
- 영국 ETS, 2026년 무상할당 2.8% 추가 감축
- UKA 가격, EU ETS 연계 기대 속 내년 최대 £76 전망
- UNDP, 스위스 NDC 위한 6.2조 ITMO 180만 톤 시장 탐색 착수
- 싱가포르-베트남 파리협정 6조 협정, ITMO 방법론 윤곽 드러나
- 쿽스토브 크레딧 기준 강화 나선 GS, 2026년 이후 전면 전환 예고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ETS 국가 보조금 지원 비율 80%로 상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 및 기업들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ETS 국가 보조금 지침'을 개정

이는 탄소 가격 상승으로 국제 경쟁에 노출된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탄소 누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이번 개정으로 유기 화학, 배터리 등 총 20개 산업 부문과 2개의 하위 부문이 새롭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수혜 부문에 대한 최대 지원 강도 역시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됨.

회원국은 정량적 근거를 통해 추가 산업을 개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이 도입되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 될 보상금 계산용 CO₂ 배출 계수도 최신 전력 시장 데이터를 반영해 업데이트함.

다만 대규모 보조금 수혜 기업은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탈탄소화 프로젝트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지원과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도모



영국 ETS, 2026년 무상할당 2.8% 추가 감축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UK ETS) 당국이 2026년 무상할당 계획을 공개, 전년대비 2.8% 감소한 약 2,494만 개의 배출권을 산업 부문에 배정할 예정임을 밝힘.

이는 2021년 탄소시장 개설 이후 누적 기준 무상할당 규모가 3분의 1 이상 축소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사전에 예고해 온 방향과 일치하며, 장기적으로 무상할당을 줄이고 시장을 통한 배출권 조달 비중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반영

아울러 이번 할당 계획에서는 British Steel의 Scunthorpe 제철소가 268만 개를 할당받아 단일 시설로는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Esso와 Phillips 66 등 주요 정유사들도 각각 100만 개 이상의 무상할당을 확보

또한 신규 가스 화력 발전 시설과 LNG 터미널, Sellafield 핵폐기물 처리장 등이 새롭게 할당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의 기존 예고와 궤를 같이하며 향후 산업계의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을 시사



UKA 가격, EU ETS 연계 기대 속 내년 최대 £76 전망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 연계 협상이 속도를
냄에 따라 내년도 영국 탄소배출권 (UKA) 가격이 톤당 57~76파운드
(약 11만~ 15만 원)사이에서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

최근 영국 정부와 유럽 집행위원회가 내년 봄 정상회담 전까지 연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UKA 가격은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인 65.43파운드 (약 13만 원)까지 급등하며 민감하게 반응

전문가들은 두 시장이 연계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 탄소
가격이 유럽 탄소 가격 (EUA)과 가격 수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

여기에 항공 부문 무상 할당 폐지 및 해운 부문의 신규 편입이 맞물려
2026년에는 약 360만 톤 규모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강화. 투자펀드의 순매수 포지션 확대
또한 시장의 낙관적 분위기를 뒷받침



UNDP, 스위스 NDC 위한 6.2조 ITMO 180만 톤 시장 탐색 착수

UNDP (유엔개발계획)가 고품질 탄소 시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스위스 연방 환경청과 협력, 최대 180만 톤 규모의 국제 감축 실적 (ITMO) 공급을 위한 민간 사업자 발굴에 착수

이번 모집은 우크라이나, 페루, 케냐 등 스위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한 7개국을 대상으로 검증 가능하고 이전 가능한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프로젝트 개발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나 대형 수력을 배제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 모빌리티, 농업 메탄 감축 등 고무결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인 검증을 거친 실제 감축 성과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 되는 성과 기반 지급 계약을 통해 최대 180만 ITMO 발행을 지원할 계획

스위스는 개정된 CO₂법에 따라 국내 감축을 우선하되 국제 협력을 통해 확보한 ITMO로 국가 기후 목표의 일부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동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1월 말 까지 의향서를 제출해야



싱가포르 - 베트남 파리협정 6조 협정, ITMO 방법론 윤곽 드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베트남과의 파리협정 제6.2조 이행을 위해 사전 승인된 59가지 탄소배출권 방법론 목록을 발표

금번 발표는 지난 9월 양국 간 체결된 협정의 후속 조치로, GS, Verra 등 주요 국제 등록 기관의 표준들을 폭넓게 포함

특히 메탄 감축, 에너지 효율,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산림 분야는 ART TREES 표준으로 제한하여 배출권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사전 승인된 방법론이라도 프로젝트 제출 시점의 최신 버전이 아니거나 중단·검토 중인 경우 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사전 승인이 자동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승인된 크레딧 중 5%는 베트남 기후적응 재원으로 활용되고, 추가 2%는 최초 발행 시 소각돼 글로벌 순감축에 기여할 예정



콕스토브 크레딧 기준 강화 나선 GS, 2026년 이후 전면 전환 예고

Gold Standard가 콕스토브 관련 주요 방법론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 이는 2026년 이후 모든 크레딧을 파리협정 정합 방법론으로 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구체화하는 조치

방법론 업데이트를 통해 배출량 산정의 보수성을 강화하고, 배출권 과다 발행 리스크를 차단하고자 함.

UN 지원 하에 개발된 CLEAR 방법론 역시 PACM (Article 6.4) 기준에 맞춰 개정이 추진되며, 추가성·누출 방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CORSIA 1단계 적격 공급원으로 편입되며 국제 항공 상쇄 시장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콕스토브 부문의 글로벌 시장 내 크레딧 신뢰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

아울러 GS는 농업 부문에서도 토양 탄소 증진 및 메탄 저감 프로젝트를 위한 엄격한 신규 인증 요건을 발표하며 전체 프레임워크의 질적 향상을 꾀함.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